15-31호 2015.09.18

현안과 과제

추석과 살림살이

- 차례상 준비하는 30대 여성이 추석 물가가 더 크게 올랐다고 인식

현대경제연구원

■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,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

□ 추석과 살림살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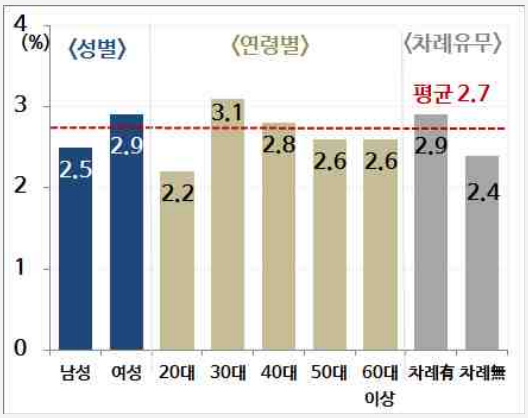
■ 배경

추석은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라는 사회적 의의와 더불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이벤트로서의 경제적 의의가 존재한다. 이에 정부, 유통업체 등은 추석을 계기로 소비심리 회복을 공고히 하고 내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, 추석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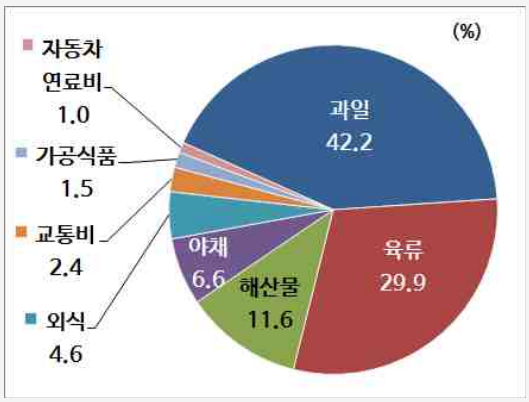
■ 추석 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

첫째, (추석물가) 차례상을 준비하는 30대 여성이 추석 물가가 더 크게 올랐다고 인식한다. 응답자들은 올해 추석 물가 상승률을 약 2.7%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, 여성·30대·차례지냄·고소득 등 추석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추석 물가 상승률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. 실제로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.7% 상승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, 국민들은 실제보다 추석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. 품목별로는 과일·육류 가격이 상승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각각 42.2%와 29.9%로 많았으며, 교통비·자동차 연료비는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.

< 체감 추석 물가 >



<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품목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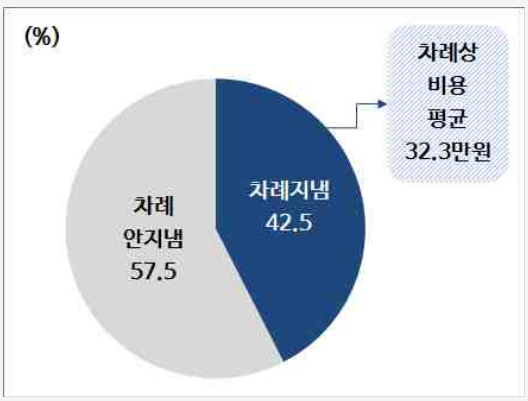
둘째, (상여금) 정규직 고소득 남성의 추석 상여금 수취율 및 금액이 높다. 임금근로자인 응답자 중 올해 추석 상여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약 73.2%, 평균 상여금액은 73.4만원으로 조사되었다. 남성의 평균 추석 상여금액은 85.6만원으로 여성의 61.5만원보다 높게 집계되었으며,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여금 수취율과 금액 모두 상승하였다. 한편 정규직은 평균 추석 상여금 수취율 78.7%, 금액 약 79.0만원으로 응답하였고, 비정규직은 평균 추석 상여금 수취율 약 49.5%, 금액 35.3만원으로 응답했다.

셋째, (차례상 비용) 차례상 비용은 소득, 자산, 상여금 여부 등과 무관하게 비슷하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.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32.3만원으로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제 조사한 차례상 비용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(전통시장 19.4만원~19.6만원, 대형유통업체 27.6만원~28.0만원, 25개 품목 기준). 한편, 추석 상여금 여부, 소득 수준, 종사상 지위, 순자산규모 등에 따른 차례상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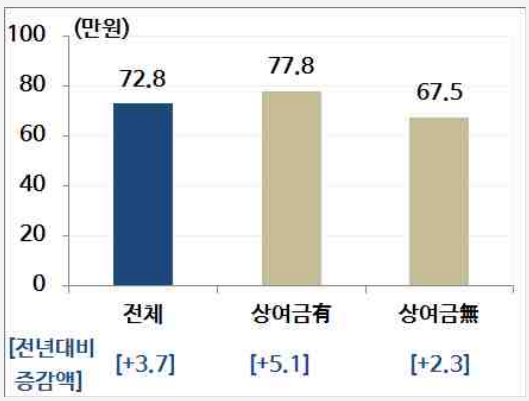
넷째, (추석 비용) 상여금을 받거나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추석 비용이 증가한다. 차례상 준비, 귀성, 여행, 선물 등 올해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약 3.7만원 증가한 약 72.8만원으로 조사되었다. 상여금이 있는 경우 여타 가구 대비 약 10.3만원을 더 지출하며,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약 9.6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다섯째, (대체휴일제 여부) 대체휴일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여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임금근로자인 응답자 중 올해 추석에 대체휴일제를 적용받는 비중은 약 86.6%으로 조사되었다. 이 중 추석 연휴기간 중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92.8%,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93.0%로 나타났다. 한편 정규직의 약 88.8%, 비정규직의 약 76.8%가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응답해,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대체휴일제 적용에 차이가 존재했다.

< 추석 차례 여부 및 차례상 비용 >



<추석 비용 및 증감액 : 상여금여부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■ 시사점

민족 최대 추석을 맞아 명절의 의미를 살리는 한편,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. **첫째,**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,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독려 등으로 저소득층의 추석 지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. **둘째,** 서민·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여 추석을 계기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시장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. **셋째,** 차례 음식, 선물 등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. **넷째,** 정부·기업체 등에 근로자 휴가 사용을 독려하여 근로의욕 제고를 도모하고 소비 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.

1. 배경

○ **(연구배경) 국가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의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함에 앞서 추석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**

- **추석은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라는 사회적 의의와 더불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이벤트로서의 경제적 의의가 있음**
  -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로서 추석 연휴기간동안 인구 및 물자 이동 증가, 가계 및 기업 지출 증가 등 연중 큰 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
  - 추석 휴무 기간의 발생으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은 다소 위축되지만, 상여금 지급, 제수 용품 및 차례음식 준비, 명절 선물 구입, 여행 등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발생

- **정부, 유통업체 등은 추석을 맞이하여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음**
  -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과 소비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「추석 민생대책」을 발표(9.15일)
  -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, 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도 추석 상품을 준비하고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기획하는 등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

- **추석을 계기로 소비심리 회복을 공고히 하고 내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, 정책 효과를 기대함에 앞서 추석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**

○ **(연구목적) 설문조사를 통해 추석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**

-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며, 유선전화 설문으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 3.5%p임
  - 응답자 특성은 <별첨> 참조

2. 추석 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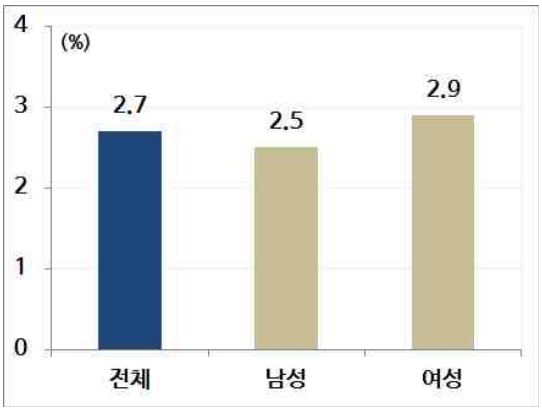
① (추석물가) 차례상을 준비하는 30대 여성이 추석 물가가 더 크게 올랐다고 인식

○ **(전체) 응답자들은 올해 추석 물가가 2.7% 상승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여성·30대·차례 지냄·고소득 등 추석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추석 물가가 높게 상승했다고 인식**

- **전체 : 응답자들이 인식한 2015년 추석 물가 상승률은 평균 2.7%로, 실제 지표와 다소 차이**
  - "올해 추석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상승하거나 하락했다고 느끼십니까?"라고 질문한 결과, 국민들이 인식하는 추석 물가 상승률은 약 2.7%
  - 실제로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.7% 상승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, 국민들은 실제보다 추석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다고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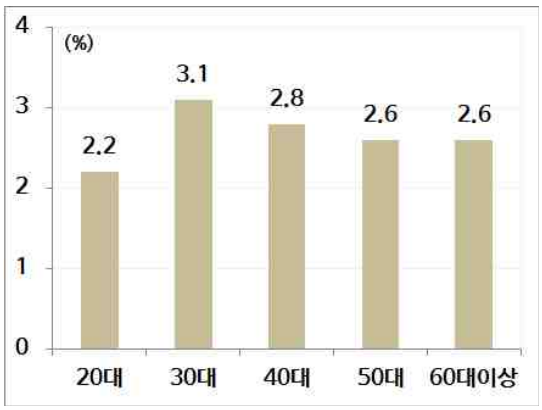
- **성별 : 여성이 인식하는 추석 물가 상승률은 남성보다 약 0.4%p 높은 2.9%로 조사**
  - 여성은 2015년 추석 물가 상승률이 약 2.9%라고 응답했으나 남성은 2.5%에 불과해, 여성이 남성보다 추석 물가가 더 크게 상승했다고 인식
  - 차례상 준비, 귀성, 여행, 선물 등 추석 준비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출 빈도가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추석 물가 상승률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

< 체감 추석 물가 : 성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체감 추석 물가 : 연령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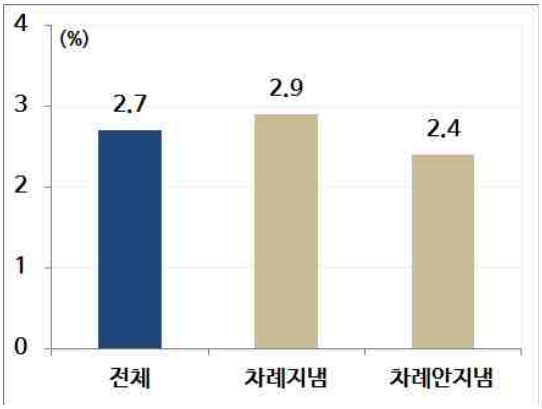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- **연령별 : 30대는 전년 대비 추석 물가가 3.1% 상승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, 20대는 2.2% 상승에 그쳤다고 인식**
  - 30대가 인식하는 추석 물가 상승률은 3.1%로 여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40대의 응답 역시 2.8%로 평균 2.7% 대비 높은 수준
  - 반면, 50대, 60대 이상이 인식하는 추석 물가 상승률은 2.6% 수준이었으며, 20대는 2.2%로 평균 2.7%를 크게 하회

- **차례 여부 : 차례를 지내는 응답자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 응답자보다 추석 물가 상승률이 0.5%p 높은 2.9%로 인식**
  - 차례를 지내는 응답자가 인식하는 추석 물가 상승률은 2.9%로 평균 2.7%를 상회하는 반면, 차례를 지내지 않는 응답자는 2.4%로 인식
  - 제수 용품 및 차례음식 준비 등 추석 지출 금액 및 빈도가 높을수록 추석 물가 상승률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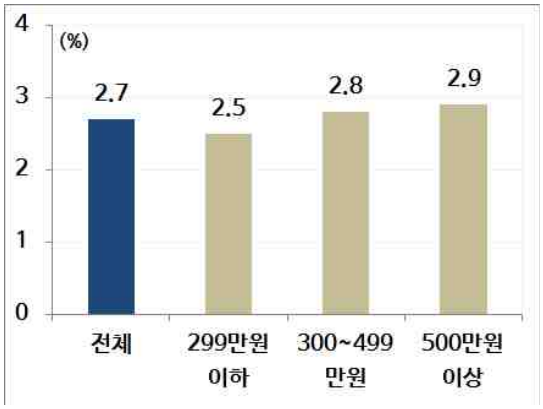
- **소득수준별 :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추석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인식**
  -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석 물가가 2.9%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, 300~499만원인 경우에는 2.8%,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.5%라고 응답
  -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고가의 선물 구입 등 추석 지출액이 많고 전년대비 증가액도 크기 때문에, 추석 물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

< 체감 추석 물가 : 차례 여부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체감 추석 물가 : 月소득수준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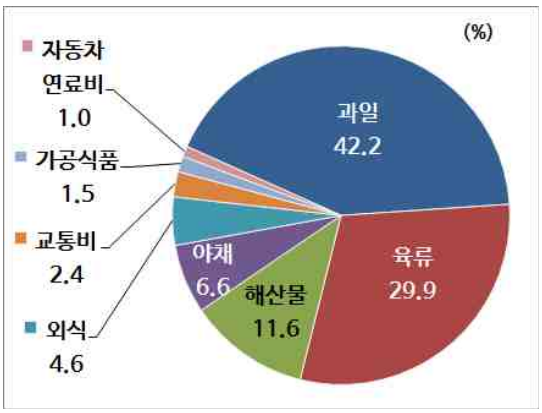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주 : 응답자 가구의 세후소득 기준.

○ (품목별 물가)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은 과일·육류·해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, 교통비·자동차 연료비는 안정적이라고 인식

- 품목별 가격상승여부 : 과일과 육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자가 많음
  · "추석에 즈음하여, 다음 중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?"라는 질문에, 응답자의 42.2%는 과일을, 29.9%는 육류를 선택
  · 응답자의 11.6%는 해산물, 6.6%는 야채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식료품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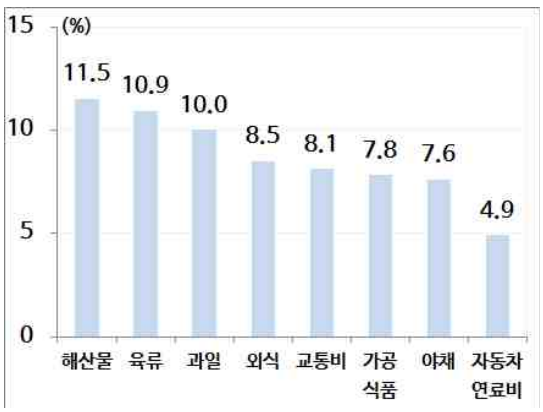
- 품목별 가격상승률 : 응답자들은 해산물, 육류, 과일이 약 10% 이상 상승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실제 지표와는 다소 차이
  · 위의 질문에 이어 "그 품목의 가격은 몇 % 올랐다고 느끼십니까?"라는 질문에, 해산물이 11.5%, 육류는 10.9%, 과일은 10.0% 상승했다고 응답한 반면, 자동차 연료비는 4.9%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
  · 실제 2015년 8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.7%에 불과한 반면,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3.4%로 높아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 등 가계가 느끼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  · 그러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5년 8월 기준 축산물 5.0%, 과실 -0.5%, 수산물 -0.6%로, 응답자의 세부 품목별 체감 물가와는 다소 차이
  · 반면, 교통비와 자동차연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.4%와 1.0%에 그쳤는데, 이는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'교통' 부문 소비자물가지수가 2015년 8월 -6.5% 하락한 실제 지표 흐름과 일치

<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품목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의 체감 가격 상승률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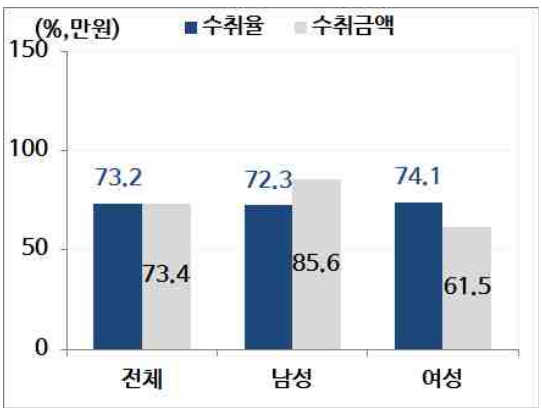
② (상여금) 정규직 고소득 남성의 추석 상여금 수취율 및 금액이 높음

- **전체 : 임금근로자인 응답자 중 올해 추석 상여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약 73.2%이고, 평균 상여 금액은 약 73.4만원으로 조사**
  -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“귀하는 올해 추석상여금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73.2%가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, 평균 상여금액은 약 73.4만원이라고 응답

- **성별 : 남성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85.6만원으로 여성의 61.5만원보다 높음**
  - 남성의 추석 상여금 수취율은 72.3%로, 여성의 74.1% 대비 소폭 낮음
  - 그러나 추석 상여금액은 남성이 평균 85.6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, 여성은 61.5만원에 불과해 정규직 비중이 높은 남성의 상여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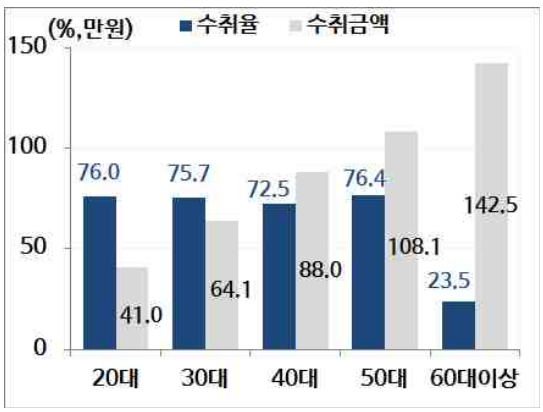
- **연령별 :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추석 상여금 수취율이 평균을 상회한 가운데, 상여금액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상승**
  -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70% 이상의 상여금 수취율을 기록한 가운데, 상여금액은 직급이 높은 고연령층일수록 상승
  - 20대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76.0%로 높은 수준이지만, 금액은 41만원으로 낮음
  - 60대 이상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3.5%로 다른 연령층 대비 낮지만 평균 상여금액은 약 142.5만원으로 가장 높은데, 이는 상여금을 받는 응답자일수록 직급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

< 추석 상여금 : 성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추석 상여금 : 연령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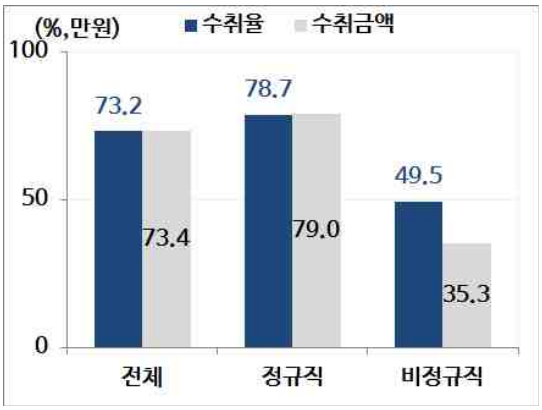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- **종사상지위별 :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추석 상여금 수취율이 29.2%p, 상여금액은 43.7만원 낮음**
  - 임금근로자인 응답자 중에서 정규직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8.7%로 집계되었으며, 상여금액은 약 79.0만원으로 조사
  - 반면, 비정규직은 추석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약 49.5%로, 상여금액은 35.3만원이라고 응답
  - 비정규직의 추석 상여금 수취율은 정규직 대비 29.2%p 낮게 나타났으며, 추석 상여금액도 정규직 대비 43.7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됨

- **소득수준별 :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추석 상여금 수취율과 상여금액 모두 상승**
  - 추석 상여금 수취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 66.2%로 가장 낮고, 300~499만원인 경우 73.5%, 500만원 이상인 경우 78.2%로 상승
  - 추석 상여금액 역시 월평균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 61.8만원으로 가장 낮고, 300~499만원인 경우 68.2만원, 500만원 이상인 경우 96.7만원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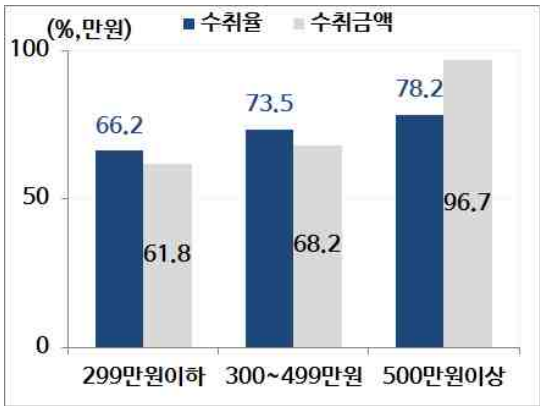
- **가계수지별 : 흑자 가구의 추석 상여금 규모가 높음**
  - 소득대비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는 추석 상여금이 71.4만원, 소득과 지출 규모가 비슷한 균형가구는 68.2만원으로 상여금 규모가 비슷한 반면, 지출대비 소득이 많은 흑자가구는 89.0만원으로 조사

< 추석 상여금 : 종사상지위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주 : 자영업자는 제외.

< 추석 상여금 : 月소득수준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주 : 응답자 가구의 세후소득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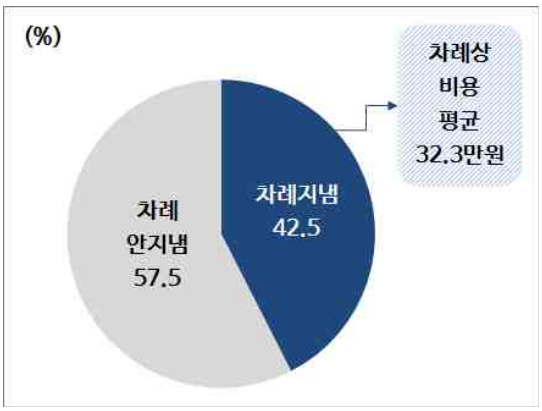
③ (차례상 비용) 차례상 비용은 소득, 자산, 상여금 여부 등과 무관하게 비슷하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

- **전체 :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32.3만원으로, 실제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**
  - "귀댁의 올해 차례상 비용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?"라는 질문에, 응답자의 약 57.5%가 차례를 지내며, 차례상 예상 비용은 평균 32.3만원
  -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제 조사한 차례상 비용 결과와는 다소 차이(전통시장 19.4만원~19.6만원, 대형유통업체 27.6만원~28.0만원, 25개 품목 기준)[1)]

- **성별 및 연령별 : 남성이 여성보다 차례상 비용이 높다고 응답했으나 금액 차이는 크지 않으며,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은 금액을 응답**
  - 예상되는 추석 차례상 비용으로 남성은 32.7만원, 여성은 31.9만원을 응답
  - 연령별로는 20대가 34.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, 30대와 40대는 32.3만원, 50대는 30.9만원, 60대 이상은 31.2만원이라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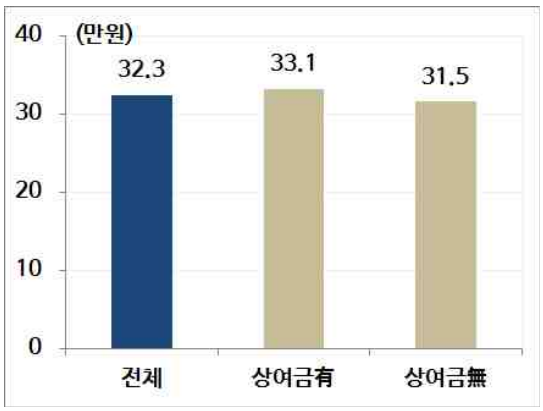
- **상여금여부 : 추석 상여금 여부는 차례상 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**
  - 추석 상여금을 받는 응답자의 차례상 비용은 33.1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,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31.5만원으로 조사
  - 상여금 유무에 따른 추석 차례상 비용 차이가 약 1.6만원에 불과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상여금 유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

< 추석 차례 여부 및 차례상 비용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추석 차례상 비용 : 상여금 여부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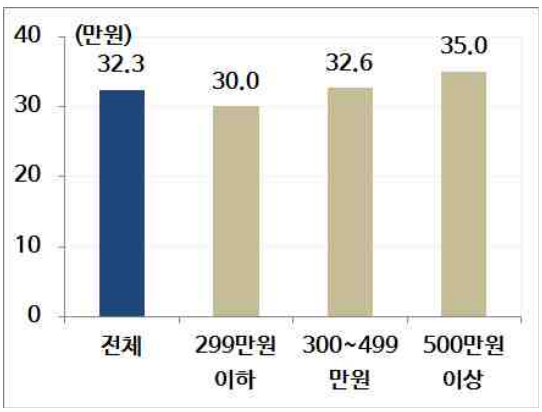
1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'추석 성수품 구입비용 안정세', 보도자료, 15.09.17 참조.

- **소득수준별 :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차례상 비용이 상승하지만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**
  - 월평균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예상되는 차례상 비용이 35.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, 소득수준 300~499만원과 299만원 이하의 경우 각각 32.6만원과 30.0만원의 차례상 비용을 예상
  - 월평균 소득수준 299만원 이하의 가구와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차례상 비용 차이는 약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, 차례를 지내는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판단

- **종사상지위별 : 정규직 근로자·자영업자 대비 비정규직의 차례상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음**
  -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올해 예상되는 차례상 비용을 각각 32.6만원과 32.7만원이라고 응답
  - 평균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차례상 비용을 30.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며, 정규직 및 자영업자 예상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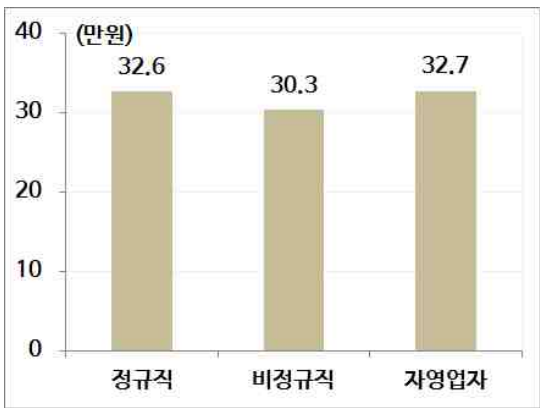
- **순자산규모별 : 순자산규모 5억원 미만인 가구들의 차례상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음**
  - 순자산규모별 1억원 미만인 경우 차례상 비용은 30.3만원, 1~3억원인 경우 31.0만원, 3~5억원인 경우 32.4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
  - 순자산규모별 5억원 이상인 경우 차례상 비용은 37.6만원으로 여타 가구 대비 다소 높은 수준

< 추석 차례상 비용 : 月소득수준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주 : 응답자 가구의 세후소득 기준.

< 추석 차례상 비용 : 종사상지위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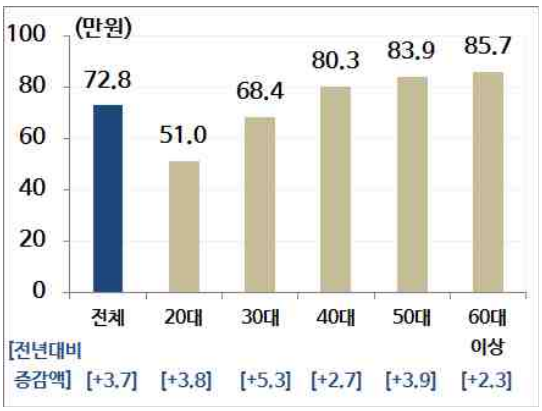
④ (추석 비용) 상여금을 받거나 대체휴일이 적용될 경우 지출 비용 증가

- **전체 : 차례상 준비, 귀성, 여행, 선물 등 응답자들의 올해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약 3.7만원 증가한 약 72.8만원**
  - "귀댁은 차례상 준비, 귀성, 여행, 선물 등을 포함하여 이번 추석에 총 얼마 정도를 지출할 것 같습니까?"라는 질문에 평균 약 72.8만원으로 응답
  - 위의 질문에 이어 "올해 추석 지출은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 정도 늘거나 줄어든 수준입니까?"라는 질문에는 평균 약 3.7만원으로 응답

- **성별 및 연령별 :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추석 비용이 증가하며, 30대는 전년대비 지출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**
  - 남성은 올해 추석 비용을 전년 대비 약 3.0만원 증가한 78.5만원이라고 응답했으며, 여성은 전년 대비 약 4.5만원 증가한 66.9만원으로 응답
  - 30대의 추석 비용은 전년대비 약 5.3만원 증가한 68.4만원으로 조사되어 증가액이 가장 크게 나타남
  - 40~60대 이상의 추석 비용은 각각 80.3만원, 83.9만원. 85.7만원으로 80만원 이상을 지출하며, 전년 대비 증가액은 각각 2.7만원, 3.9만원, 2.3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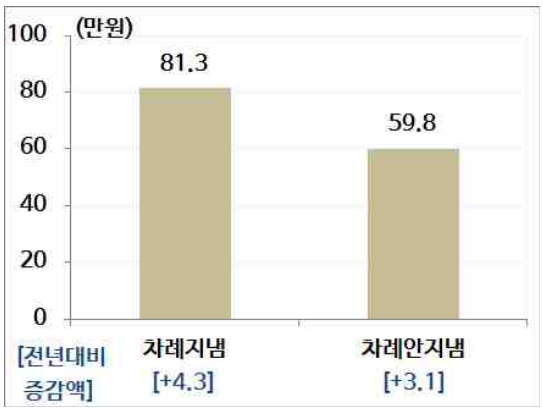
- **차례 여부 : 차례를 지내는 가구는 여타 가구 대비 약 21.5만원을 더 지출**
  - 차례를 지내는 가구의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4.3만원 증가한 81.3만원으로, 차례를 지내지 않은 가구 대비 21.5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
  - 이전 설문 중 '올해 예상되는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32.3만원'으로 조사된 금액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차례상 비용은 형제, 친지 등 여러 가구가 함께 분담하기 때문으로 판단

< 추석 비용 및 증감액 : 연령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추석 비용 및 증감액 : 차례여부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- 상여금 여부 : 상여금이 있는 경우 추석 비용은 약 10.3만원 높음

· 상여금이 있는 경우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5.1만원 증가한 77.8만원인 반면, 상여금이 없는 경우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2.3만원 증가에 그친 67.5만원으로 조사

· 상여금이 있는 경우엔 없는 경우보다 추석 비용을 약 10.3만원 더 지출한다고 응답

- 대체휴일 여부 :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추석 비용은 9.6만원 높음

·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응답자의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4.7만원 증가한 75.7만원, 대체휴일이 없는 응답자의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1.6만원 증가한 66.1만원으로 조사

·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응답자는 대체휴일이 없는 응답자보다 추석 비용을 약 9.6만원 더 지출한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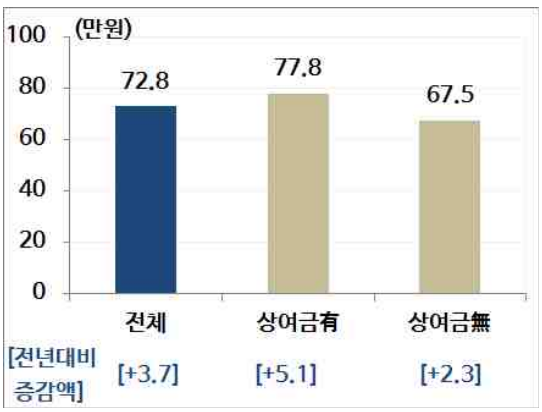
- 종사상지위별 : 자영업자의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 경기의 위축이 추석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

·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추석 비용은 각각 약 75.1만원과 75.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, 전년 대비 증가액도 각각 5.4만원과 3.1만원으로 비슷한 수준

· 자영업자의 추석 비용은 80.0만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, 전년과 비교했을 경우 오히려 0.5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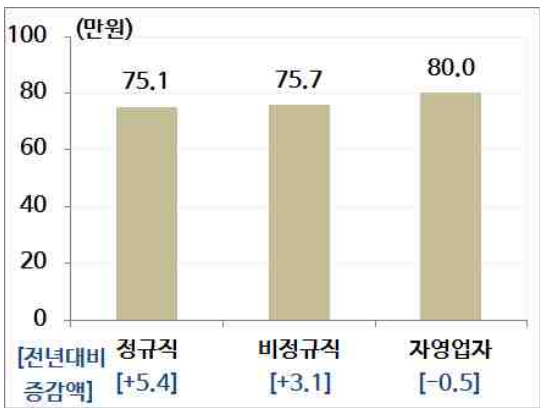
· 이는 장기화된 내수 불황, 동종 업종 간 경쟁 등으로 자영업자의 위축된 경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

<추석 비용 및 증감액 : 상여금여부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추석 비용 및 증감액 : 종사상지위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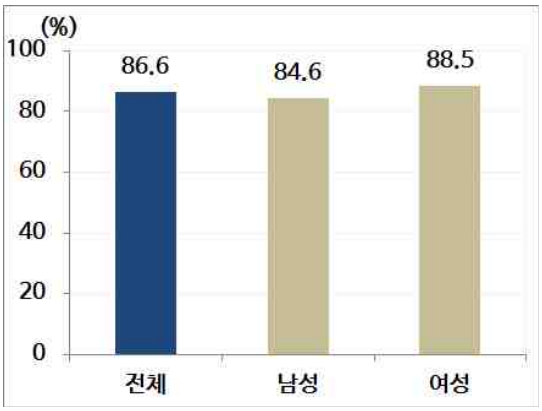
⑤ (대체휴일제 여부) 대체휴일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여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

- **전체 : 임금근로자인 응답자 중 올해 추석에 대체휴일제를 적용받는 비중은 약 86.6%**
  - "올해 추석은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어 3일 연휴가 아닌 4일 연휴입니다. 다만 정부·공공기관과는 달리 일반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닌데요, 귀하는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"라는 질문에,
  - 정규직, 비정규직 등 임금근로자인 응답자 중 약 86.6%가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- **성별 :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는 응답은 남·여 모두 비슷한 수준**
  - 남성 임금근로자 중 약 84.6%,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약 88.5%가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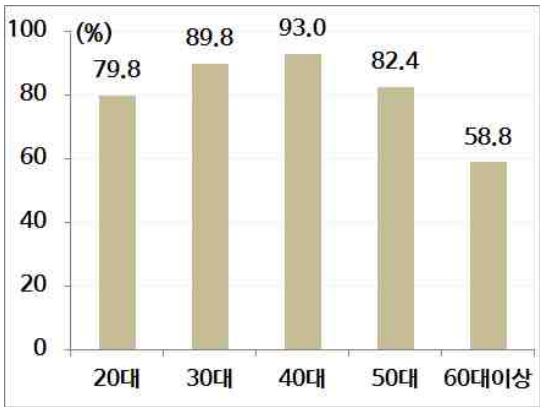
- **연령별 :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대체휴일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증가**
  - 임금근로자인 20대의 79.8%, 30대의 89.8%, 40대의 93.0%, 50대의 82.4%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
  - 임금근로자인 60대 이상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58.8%의 응답자가 대체휴일제 적용을 예상하는데, 이는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 대체휴일제 적용과 무관하기 때문으로 판단됨

< 대체휴일제 여부 : 성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대체휴일제 여부 : 연령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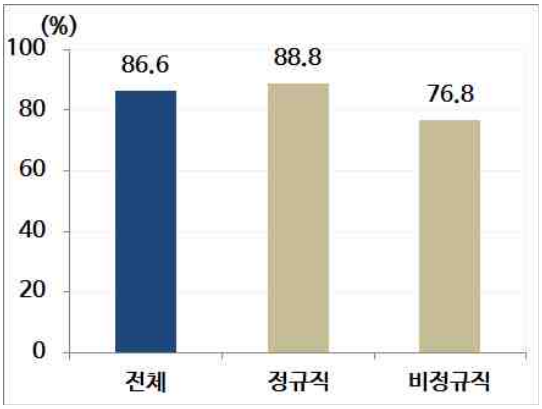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- **종사상지위별 :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높음**
  - 응답자 중 정규직의 경우 약 88.8%, 비정규직의 경우 약 76.8%가 대체휴일제를 적용될 것으로 판단
  - 파견 근로자,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정규직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

- **여행계획별 : 대체휴일제 여부는 추석 연휴기간의 여행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**
  - 추석 연휴기간 중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92.8%,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93.0%로 조사
  - 국민들은 대체휴일 유무와 무관하게 민족 최대 명절의 의미상 여행보다는 가족·친지 방문 등을 계획하는 경향이 높으며,
  - 또한 국내 여행은 교통 체증, 편의시설 휴무 등으로 인해 대체휴일제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, 해외 여행은 휴가 및 연차 등을 활용해 계획하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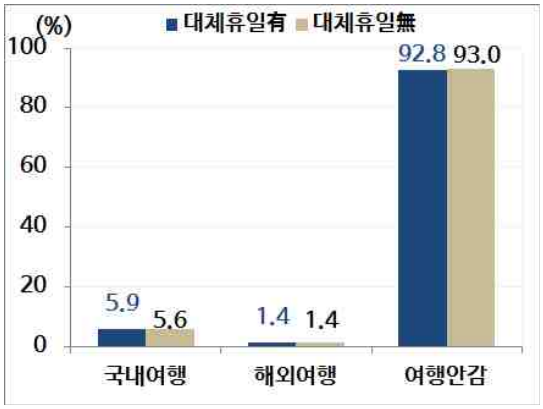
- **소득수준별 : 소득 수준과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는 무관**
  - 추석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에 대해 월평균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88.8%, 소득수준 300~499만원과 299만원 이하의 경우 각각 86.3%와 86.0%로 응답해 소득 수준과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

< 대체휴일제 여부 : 종사상지위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주 : 자영업자는 제외.

< 대체휴일제 여부 : 여행계획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3. 시사점

○ **민족 최대 추석을 맞아 명절의 의미를 살리는 한편,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**

- 첫째,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,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독려 등으로 저소득층의 추석 지출 부담 완화

· 설문 조사 결과, 소득, 자산 등과 무관하게 추석 차례상 예상 금액이 비슷하게 집계되는 등 저소득층일수록 추석 지출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

· 근로장려금(EITC), 자녀장려금(CTC)[2] 조기 지급, 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지도 및 단속 등 정책 지원 필요

- 둘째, 서민·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여 추석을 계기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시장의 활력을 제고

· 최근 경기가 악화된 자영업자의 추석 지출 비용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경기 불안감 확대로 추석 대목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

· 서민·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 지원,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서민 체감경기를 활성화

- 셋째, 차례 음식, 선물 등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

· 기존 계획된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 확대, 직거래 장터 개설, 성수품 물가정보 제고 등을 통해 수급 안정 추진

· 특히, 민간의 물가 상승 심리가 높은 과일, 육류, 해산물을 중심으로 비축물량 방출, 물가 조사 및 가격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지속

· 일반 성수품 뿐만 아니라 추석 기간에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 품목의 가격 관리도 동반되어야 함

- 넷째, 정부·기업체 등에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여 근로의욕 제고를

2) 근로장려금(Earned Income Tax Credit; EITC): 근로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.
자녀장려금(Child Tax Credit; CTC): 부부합산 연봉 4000만원 이하분들의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.

도모하고 소비 지출을 활성화

- 추석 연휴 전후 정부·공공기관·일반 기업체 등의 휴가 및 연차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근로 의욕을 제고하고 소비 지출을 활성화
- 조사 결과,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연휴 기간이 증가할 경우 추석 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추석 연휴 전후의 휴가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실제 지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

백다미 선임연구원 (2072-6239, dm100@hri.co.kr)

<별첨> 응답자 특성

(%)

응답자 특성		비중	응답자 특성		비중
전체	806명	100%	소득 수준별	~300만원	32.6
성별	남성	50.5		300~499만원	35.9
	여성	49.5		500만원~	31.6
연령별	20대	23.9	순자산 규모별	1억원 미만	16.9
	30대	24.7		1억~3억원 미만	44.0
	40대	24.3		3억~5억원 미만	18.7
	50대	15.5		5억원 이상	20.5
	60대 이상	11.5			
지역별	서울	20.8	가구주 직업별	정규직	52.6
	인천/경기	27.3		비정규직	11.9
	충청/호남권	25.1		자영업자	11.4
	영남권	26.8		기타	24.2
			가계수지	흑자가구	18.9
				균형가구	50.1
				적자가구	31.0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